

「가톨릭 청년」 四월호 차례

表紙畫

예수회의西江大學

復活祝詩

불을 켜십시오

李錫鉉 (卷頭)

節特輯

復活 죽음의 征服

金榮九 (2)

復活날 일어난 일

이암석 (7)

現代危機의 宗教史의 考察

尹炳熙 (87)

미사는 교회의 제사다

김다미안 (45)

은혜받은 柳洪烈博士 家庭

(34)

△降福家庭을 찾아서

△교리교설 聖事論

朴養雲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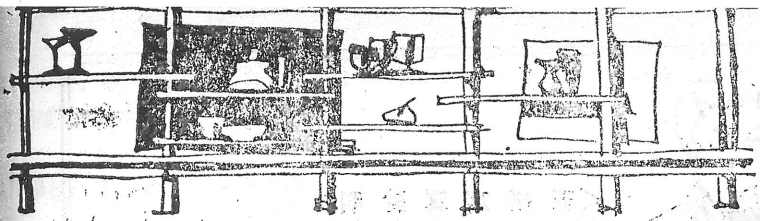
어린이 교리 교수법

김정진 (22)

漫畫

四月 유모어

오원석 (82)



尊貴한 痛悔

(扉面)

△追悼文 故 廉想涉氏 靈前に 드림

李鍾淳 (84)

李承薰의 편지가 말하는 假聖事 執行 誠農 崔奭祐 (54)
安안또니 副主教님과 省察記 略木版考 이병영 (60)

△音樂鑑賞

빠로시神父의 오라토리오 李文根 (71)
「그리스도의 復活」

傳教秘話 七男妹를 두고간 中年男子의 代세 주 미 (28)

主日學校聖歌小考 尹龍河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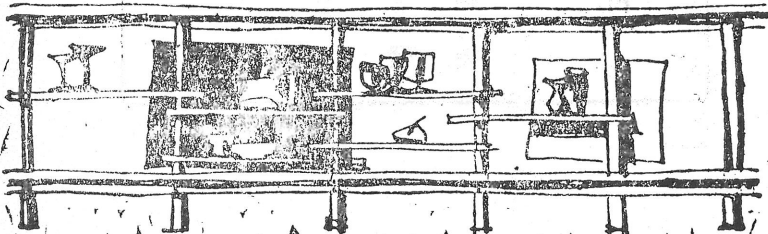
(筆) 眞新 강산호 (103)

(隨) 편지 박敬用 (99)

가정 따라가오리다 박경수 (77) 아가페 이동진 (77)
시단 戰線에서 鄭안드레아 (77) 하루 윤재복 (78)

△연재소설 不信期 金泰植 (79) 라우르 드 나벨리 (109)

편집후기 (122) 가청신문 (80)



李承薰의 편지가 말하는 聖事 執行



誠農 崔 奭 祐

한국 초대 교회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지 않은 세가지의 중요한 史料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모두가 편지들인데 첫째 것은 一七八九년말 北京의 北堂에 있는 불란서 전교 신부들에게(註1) 보낸 李承薰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그는 一七八四年 봄철에 北京에서 성체를 받고 고국에 돌아온 이래 신부가 없는 소위 『평신도의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또 어떠한 박해를 겪었는지를 자세하게 진술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미 천명이나 되는 교우들이 신부도 없고 성사도 받을 수가 없어서 善意的 무지에서 성체와 고해와 견진과 미사 성체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사실 집행했다는 것이 편지의 웃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李承薰한테 임명된 열명의 신부중 하나인 『원전』(註2)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성사 생활이 무효함을 발견했다. 그는 성사에서 이러한 사제직의 『인신』의 缺如로 무효한 뿐만

아니라 사제직의 집행이 독성죄임은 밝히고 곧 성사 집행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李承薰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 『원전』의 편지가 둘째 사료이다. 셋째 편지는 또 李承薰의 것으로서 一七九〇년 성신 강림후 七주일 부로 쓰여진 것이다. 여기서 그는 北堂의 불란서 신부들의 회답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동시에 한국에 신부를 모실 구체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이번엔 첫째 편지만 소개하고 두께와 셋째의 것은 다음 기회에 발표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사료들의 가치는 사실상 크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漢文의 原本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佛譯의 사본만이 오늘날 남아 있는 까닭에 이 사료 자체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본이며 게다가 번역이라는 점에서 물론 의적, 내적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료들이 비록 번역 사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격자들의 보고라는 점에서 달래의 것보다는 월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만큼 달래의 『한국 교회사』는 특히 그 초대사에 있어서 이 사료를 기초로 대조하여 재발하게 비판과 검토와 정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불역에서 또 한글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완전하고 충실한 번역이 불가능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佛文 자체가 고문체 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도 있었다. 하여간 불완전한 번역이나마 앞날에 비판과 정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교회사가들의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발표하는 바이다.

한국에서 一七八九년말 나 이 배루두는 부복하여 동정을 받도록 가슴을 치며 一七八四年 봄부터 성체를 받은 이래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하여 나의 신부님들 앞에 참회합니다. 나는 천주의 성총을 완전히 잃고자 진하여 마귀의 노예가 되므로 감히 성사집행에 간섭하기까지 막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잃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잃게 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죄중

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아! 지상에서 나를 용
납해 줄 모퉁이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자 하신 저 무한한 자비가 아니
고는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러한 모든 생각은 나를 공포로 차게 하는 동시
에 나의 감사의 정을 소모시킵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교 단체에서 일어난 사건과
나의 죄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천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소생의 안전한
길을 가리켜 주시기 위하여 천주께 칭을 드리도
록 당신네들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
한 (도움)의 필요는 나 혼자에게만 관계되는 것
의 아니라 또한 나의 동포들에게도 상관되는 것
입니다. 성교를 봉행하는 동포의 수는 약 천명
이 되며 그들은 죄에 억눌려서 빛을 찾을 곳을
모르고 암흑 가운데 살고 있으며 신부를 구하지
못하여 고해 성사를 보지 못함으로써 재기(再起)
의 아무런 방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끝이 없는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
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갖고 온 책에서 나의 종교를 연구하고 또 그것
을 나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었습니
다. 여기 저기 돌아 다니다가 나는 한명의 학자
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우리 종교의 책을 발견
했었고, 또 그것을 몇 년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무익하지가 않았으니 종교
에 관하여 가장 이해가 곤란한 점에 관해서까지
도 좀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열
심은 그의 지식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나를 가르
치고 고무한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자
신이 천주를 섬기고 또한 다른 이가 천주를 섬
기도록 서로 도왔으며, 그래서 천명이 신앙에 복
종하여 성세를 받기를 진심으로 청해 왔고 모든
이들이 진지한 청으로 그중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복경에서 받은 성세의 예절에 따라 성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박해가 일어났읍니다.
나의 가족은 다른 이들 보다 박해때문에 더 고
통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의 형제들을 떠나야만 하였읍니다. 그러나 영세
준비를 중단하지 않기 위하여 내 대신 다른 이

다만 그 은혜를 누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것
입니까? 그러나 신부님들이여 우리가 어떠한 근
심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를 불쌍히 보시고 동정하시와 당신들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어 파선을 당하고 바야흐
로 물에 빠지려는 불행한 자들을 구해 주소서.
보십시오. 나의 최상과 이 새 그리스도교회의 상
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一, 내가 성세를 받았을 때 배워야 할 것에 대
하여 나는 피상적인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영
세는 유효합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신들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二, 물론 나는 성교회에 들어갈 의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거기엔 내가 수학(數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의향도 섞여 있었습니다.

三, 복경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상
본을 외교인들에게 마졌었는데 그들이 후에 그것
을 내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독성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四, 고국에 돌아오자 나의 급한 일이란 내가

돌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한 학자이며,
또 다른 이는 박해동안 많은 고통을 참아 받고
체포되지 一年후인 一七八五년 가을 경에 죽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五, 一七八六년 봄철에 교우들은 서로 고해를
하는 방식을 토의하고자 모였으며 갑(甲)은 을
(乙)에게 고해를 하고, 한편 을(乙)은 병(丙)에
게 고해를 하도록 하지만 갑(甲)과 을(乙)이나
을(乙)과 병(丙)은 서로 고해하면 안되도록 결의
를 보았습니다. 같은 해 가을쯤에 교우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전진 성사를 집행할 것이 결의 되었습니다. 이
렇게 나는 교우들의 권고를 따를 뿐만 아니라
또 미사를 드릴 같은 권한을 다른 열 사람에게
도 주었습니다. 성사 집행의 예절에 관해서는 여
러 기구에서 적혀 있는대로 지켰는데 어떤 것은
삭제하고 또 어떤 것은 첨부했습니다. 기구문은
우리 신공책 가운데서 추렸습니다. 一七八六년에
비로소 나는 이것이 독성죄임을 알았습니다. 그
것은 봄철이었는데 저 열명의 신부중의 하나가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제의 품위에 임명되자 聖敎(?) (要註)란 책을 아주 주의하여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나의 모든 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내게 편지를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 그의 편지의 사본 하나를 동봉합니다. 열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 죄 때문에 나의 뼈속까지 후들 후들 떨립니다. 나는 즉시로 성사가 집행되던 여러 곳에 다 그 집행을 중지시키고 교우들에게 나의 동성조를 알렸습니다.

六、一七八四年 말경에 나는 그람퐁(註四) 신부님께 편지를 보내어, 내가 지적인 사람 편에 책을 좀 보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一七八五年 음력 四월에야 비로소 도착되었는데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체포되고 책(들)과 또 그람퐁 신부님의 회담도 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통로는 자세히 감시되고 통행자는 누구나 엄한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편지가 발각될까 두려워 그것을

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공은 지탱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성사가 중지된 이래 우리는 의지할 데를 잃고 밤낮으로 구원되기를 바라며 매일 같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구라파에서 당신네들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또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해 주소서. 이 소식을 당신들에게 좀 더 일찍 전해 드리지 못한 것은 박해가 우리의 소원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가난으로 인하여 이것을 성취시킬 방법을 얻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우들은 홀로 해매이며 구원의 맹렬한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고, 또 고해 성사를 못받게 되니 그들의 처음의 열심이 식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전 세계는 주교와 신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구석만이 어찌 구속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야 할 곳입니까? 우리는 당신 사제들과 주님의 사신들 앞에 부족하여 우리 주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중도들의 덕행을 본받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죄의 무계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부활과 소생의 길을 마련해 주시도록 당신들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당신들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청입니다.

바단 위에 싸서 명주 천으로 싸았습니다. 사실 나의 사자(使者)와 동행인 여행자들의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새로운 전 그리스도교 단체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요, 또 다시는 당신들과 문통할 길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청컨대 신부들이여, 이 편지의 지참인 위에 다칠 수 있는 여려가지의 사고를 감시해 주십시오. 로써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네들의 소식을 받아보게 되는 행복을 갖기 위해서 그가 조심 있게 행동하도록 그에게 충고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一七八四年 이래 우리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과연 천주를 공경하는 이들은 두루 천리에 이르고 그 수는 천명에 이릅니다. 박해가 별쳐 四、五차례서 일어났고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번 때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약속을 강요당하고 결국 그들을 배교시키기 위하여 아무 것도 아끼질 않았읍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이가 그들의 불변의 항구성과 견고와 용기로써 뛰어나고, 또 그중 열명 이상이 그들의 피로써 신앙을 증거했

내가 당신들과 연락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이 그리스도교 단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부님들만이 이 사실을 아시고 체셔야 했습니다. (註五) 註一, 당시에 북경에는 등서남부 사방에 네성당이 있었다. 북쪽의 것을 北堂이라고 하였고 거기에 一六九三年부터 불란서 예수회원이 거주하고 있었고 一七七三年 예수회가 해체(解體)된 후에도 전 예수회원이던 불란서 신부들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

註二, 「달레」의 「한구 교회사」에 나타난 신부들의 이름은 李端源(李昌), 柳恒儉, 崔昌賢(貫泉)의 세명 뿐이다. 그런데 『현천』이란 중국식 발음은 이제 이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천』이라 중국의 표준 발음이 아닌 지방의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현천』이가 이 세 명중의 하나인가 또는 다른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註三, 불란서본에는 "Cheng Kiao Iva Yao"이다. 『聖敎』 要의 세 글자는 해당되는 듯 하나 체재 것이 무슨자에 해당되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다. 방언인가? 오역인가? 오기(誤記)나? 앞으로 연구 될 문제이다.

註四, 그람퐁 신부의 중국성명은 『광동재』이다. 註五, 이 편지의 불역, 즉 본문의 로마의 포교성서의 고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다. 이 한글역은 필자가 갖고 있는 저 불역 사본의 사진판에 의한 것이다.